

2023. 6. 22.(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3년 6월 22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담당관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

2133-2910

사물인터넷팀장

강성모

2133-2938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7매

담당자

이상범

2133-2957

서울시, 시민안전·편의 향상을 위해 지능형 사물인터넷 서비스 지속 확산

- '18년부터 매년 시민 체감형 서비스 발굴 및 현장검증, 도시전역 확산 추진
- 올해는 관악구 CCTV 관제센터 연계 어린이 실종예방과 로봇 활용 안전순찰 및 역사문화안내를 서대문구 폭우시 저지대 취약가구 침수 화재상황 실시간 예·경보 및 대응서비스 실증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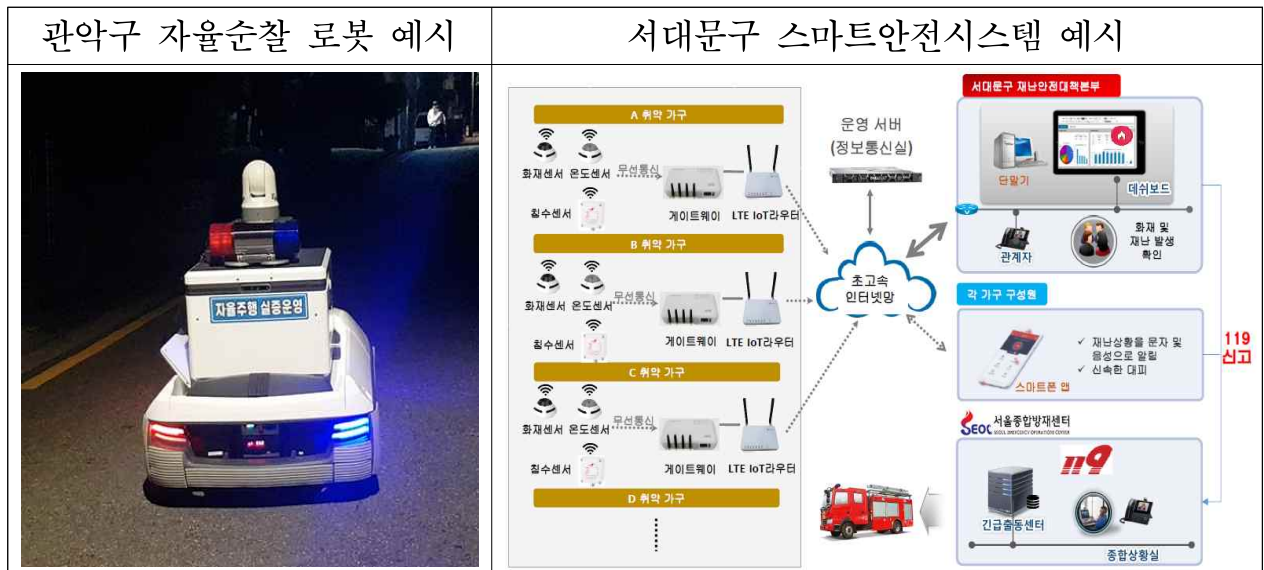
새내기 직장인 이서울양 퇴근 후 운동을 마치고 밤 10시 집으로 걸어간다. 조금은 어둡고 한적한 골목길이지만 동네 곳곳을 돌며 촬영한 영상을 관제센터로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경보발생과 함께 경찰과 연계해 시민을 지켜주는 자율주행 로봇이 있어 안심이다. 낮에는 로봇이 문화재와 역사를 소개하는 관광안내 기능도 수행한다고 하니 여러모로 쓸모있다.

김서울 어르신은 오늘도 가까운 동네 스마트경로당으로 향한다. 경로당엔 얼굴 인식만으로도 심박수, 혈압, 스트레스를 측정해 주는 똑똑한 인공지능 키오스크가 있어 빠르게 건강상태를 확인해 본다. 오늘도 모든 수치가 정상. 날마다 간편하게 건강을 확인할 수 있으니 편리하다. 오후엔 의사선생님이 온라인 화상시스템으로 고지혈증 관리 강좌를 하며 평소 궁금했던 질문들에도 바로바로 답변해 주니 경로당이 참 좋아졌다.

서울시는 시민이 생활현장 곳곳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발굴하고 도시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기술 및 효과성을 검증하는 지능형 사물인터넷 시범사업을 매년 추진한다.

- 그동안(2018년~현재) 사회취약계층(어르신, 1인가구, 여성, 장애인, 어린이 등)의 안전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해 귀갓길 안심 스마트 보안등, 1인가구 돌봄 스마트플러그, 교통사고 예방 스마트횡단보도, 스마트 기능 통합 스마트폴 등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현장 검증과정을 거쳐 우수한 서비스는 도시전역으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에는 관악구에서 안전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역사·문화를 안내하는 자율주행 로봇과 비콘 활용 CCTV 관제센터 연계 어린이 실종예방 사업을, 서대문구에서는 폭우 시 저지대 취약가구의 침수·화재상황을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총괄 대응하는 스마트 안전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낙성대 공원과 신림동 별빛 내린천 공원 일대에는 CCTV, 스피커, 경광등, 각종 센서가 결합된 자율주행 로봇 2기가 배치되어 야간엔 취약지역을 순찰하며 촬영한 영상을 CCTV 관제센터에 실시간 제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간엔 공원 내 문화재와 역사 안내를 수행한다.
 - 관악구 일대 어린이집 30개소에 원아 2,8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심지역 이탈알림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실종신고 발생 즉시 경찰과 인근 CCTV와 연계하여 아동을 추적, 실종사고를 방지한다.
 - 서대문구 일대 300개 반지하 가구에는 침수, 화재, 일산화탄소 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취약가구의 안전상태를 실시간으로 원격 관리하고 만일의 사고를 대비한다.



- 작년에는 관악구 내 기존 경로당 10개소를 스마트경로당으로 전환하고, 종로구 일대에 소화전 13개소를 관할 소방서에서 원격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 보라매 경로당, 예촌 경로당 등 관악구 일대에 구축한 스마트경로당에는 얼굴인식만으로도 혈압, 심박수, 스트레스 등을 파악해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 노래, 민요, 체조교실 등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양방향 온라인 여가복지 콘텐츠 제공시스템과 식당, 병원, 은행, 민원서류 발급기 등 생활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12종 키오스크를 모의체험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해 키오스크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한다.
 - 창신동, 부암동 등 종로구 관내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13개소에는 CCTV, 경광등, 소화전 수압, 배수, 결빙확인 센서가 결합된 지능형 원격 소화전을 시범 구축해 소화전이 언제든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원격관리하며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 감지 시 자동으로




경광등과 음성메시지로 차량 이동을 유도하여 소방차 통행로를 상시 확보한다.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

-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도시를 지탱하는 안전, 교통, 환경, 복지 등 공공 기반시설을 지능형 사물인터넷 기술로 연결하여 도시 현안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시민의 일상생활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다양한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시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스마트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도록 힘쓰겠다” 라고 말했다.

붙임 .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시범사업 추진내용

□ 그 간 추진내용(2018~2022)

스마트경로당		
<p>· 경로당에 얼굴인식 기반 건강관리 키오스크, 양방향 온라인 여가복지 콘텐츠 제공시스템, 키오스크 체험기기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건강·복지 향상 추구 및 디지털격차 해소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관악구 일대 스마트경로당 10개소 시범설치 : 보라매, 드림타운, 청림현대, 예촌, 신일, 현대아파트, 신사, 법원, 난향, 현대3차아파트 경로당 ▶ 2026년까지 누적 100개소 구축 추진 		
		
건강관리 키오스크	온라인 여가복지 콘텐츠 제공기기	키오스크 체험기기

IoT 지능형 소화전 관리시스템	
<p>· 소화전 옆에 센서, 경광등, 스피커, CCTV 등이 탑재된 폴대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를 사전 차단하고, 소화전의 온도, 수압 상태를 실시간으로 원격 모니터링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종로구 일대(창신동·부암동)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13개소에 시범설치 ▶ 2023년 시범운영 후 2024년 확장 설치 검토 	

스마트횡단보도

- 횡단보도에 바닥형 LED신호등,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교통신호 위반 차량번호 자동식별장치 등 결합 교통사고 예방 및 법규 준수 유도
 - ▶ 2019년 성동구 일대 12개소 시범설치
 - ▶ 시 전역 스마트횡단보도 설치확산



스마트폴

- 복잡한 도로시설물(가로등·신호등·CCTV) 통합,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능 결합(전기차충전·공공와이파이·IoT), 도시미관 향상, 보행여건 개선, 구축비용을 절감하는 똑똑한 지주
 - ▶ 2020년부터 현재까지 14개 자치구, 한강공원 일대 342기 설치
 - ▶ 2024년 9개 자치구에 69기 설치 추진



1인가구 안심돌봄 스마트플러그

- 자주 사용하는 가전제품에 스마트플러그 연결하여 전력 사용 여부 확인, 전력사용패턴 이상 감지시 전화 및 방문확인 조치
 - ▶ 2019년부터 현재까지 1인 거주 4,300가구에 돌봄 스마트플러그 설치
 - ▶ 2025년까지 3,000대 추가보급 추진



밤길 안심 스마트보안등

- 보안등에 사물인터넷 기술 결합, 실시간 원격 고장감시, 밝기조절, 안심이 앱 연동 긴급신고 및 안심귀가 지원
 - ▶ 2018년 동작구, 구로구 일대 400개 시범설치
 - ▶ 2025년까지 노후 보안등 15,500개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 추진



IoT 투명페트병 재활용 서비스

- 마포구 일대 1인 가구·청년 밀집 거주, 이동 지역에 IoT 페트병 분리 배출함 설치
 - ▶ 2021년부터 현재까지 22개 자치구에 139대 운영중, 2026년까지 200대 추가
 - ▶ 시민 : 페트병 분리배출 및 보상 포인트 적립
 - ▶ 협력업체 : 수집 페트병 재생원료로 활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방지 서비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카메라 센서를 통해 차량 번호를 인식, 장애인 차량 여부 조회하여 불법주차 계도 알림(경광등, 음성경고)
 - ▶ 2019년 양천구 일대 80면 시범설치, 강남, 성동, 마포, 서대문구로 구축 확대
 - ▶ 전기차 충전 전용구역 주·정차 방지 서비스로도 기능 확장 및 설치 추진 중

